

10. 7 재판에 대해

10. 7.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후 약 2개월 만의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가 중앙 판사석에 앉고 공판담당검사는 참관인이 바라보기에 왼 쪽에 자리했으며 변호사 및 선생님께서는 오른 쪽에 위치했습니다. 변호인은 모두 6명입니다.

오늘의 재판은 1심에서의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1심 재판기록과 검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살피고 들어왔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 및 선생님께 몇 가지는 묻기도 하고 몇 가지는 입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제출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거로서 제출할 자료나 내세울 증인,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채택을 하거나 일단 의논해 보고 다음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게 된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증인을 심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판장께서는 10월 23일 (목)에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매주 목요일에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공의로운 재판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